

한농지 화순 연합회, 연시총회 개최

<한국농촌지도자>

임원 60명 참석...2020년 사업계획 수립

'농촌지도자의 역할과 사명' 강의도 열려

화순군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 2020년 연시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 소속 군과 읍·면 임원 6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 수립, 공익수당 등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사업 안내, '농촌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한 한국추진신문회원 임용택 원장의 강의 등이 진행됐다.

총회에서 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는 2017년부터 도입한 발효농법의 읍·면별 실천을 확대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폐농약병 수거 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후원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는 지난 20일 화순군 노인 공동요양시설 4곳에 1000kg 상당의 쌀과 떡국을 기증해 훈훈한 정을 나누기도 했다.

정승재 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장은 "기상이변 등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에·봉사·창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발



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지도자회는 666명의 전문농업인으로 구성된 학습단체로 농업신기술 보급, 농약안전사용 실천 등 영농현장 지도자로서 활동을 강화해 명품 화순농업을 이끄는

단체로 육성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농업 농촌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특색에 맞는 틈새 소득작목 발굴 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프리미엄 멜론 생산 위해 곡성군·지역농협·농가 뭉친다

생산·수요 집중된 6~10월 거래처 확보...곡성멜론 브랜드화 시동



곡성군이 프리미엄 멜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멜론 생산과 수

요가 집중되는 6~10월에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 프리미엄 멜론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농가는 유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고, 수요

처는 질 높은 멜론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고품질 멜론을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곡성군과 지역농협이 협력해 적극적인 수행의지가 있는 소수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명품멜론 연구회를 결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해 11월부터 멜론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 생산 및 유통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했다. 그리고 올 1월 사업에 참여할 명품멜론 연구회 회원을 모집했다. 연구회는 2월 4일 첫모임을 통해 회

장 및 임원진을 선출하고 생산 및 출하계획을 주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생산 농가는 농가 간 멜론재배기술을 공유해 만들어진 매뉴얼을 통해 고품질 멜론 생산에 집중하게 된다. 농협에서는 거래처 발굴, 판촉 행사 등 마케팅과 출하농가를 관리를 맡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총괄하며 농가 역량강화 교육, 농가 맞춤형 기술 및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조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는 계획 생산 및 계획 출하 첫 걸음 단계라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나비효과가 되어 생산 조직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 생산을 통해 곡성 멜론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진호 기자

구례군의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

구례군의회가 지난 29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노성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의 배경은 구례군을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해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군 의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은 물론 국내·외 평생학습망과 연계해 평생학습리더를 육성하고,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에도 앞장서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의 자

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위해 그동안 조례제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전담부서 신설과 평생교육사 배치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구례=박진호 기자

지역 온라인몰 '보성물' 꾸준한 성장세

전년 비 판매수익 67%↑

보성군 온라인 쇼핑몰 '보성물'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67% 상승한 4억 7천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보성물은 보성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2017년 오픈 이래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48백만 원, 2018년 228백만 원, 2019년 470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보성물은 700백만 원 매출을 목표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노출광고 및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한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신규 회원 가입시 5,000원 적립금과 5% 구매적립금, 택배비 3,000원 지원, 상품후기 및 댓글작성 시 1,000원 적립금 등 구매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특전을 꾸준히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보성군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과 독감에 방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 된 녹차

를 전국민이 더욱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특별할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보성물은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자랑하는 녹차와 차 연관제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과 공예품 등 제품을 체계적이고 엄선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성물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힘든 영세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명절과 계절별 대체로운 할인행사로 신규회원 유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상의 상품으로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유지해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작년 e-커머스 프로모션에서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 수출 등 다방면에서 보성 농수산물 판매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성=인구일 기자

나주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

나주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유중 박사를 초청,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이해와 응용'이라는 주제로 제30회 수요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나주시가 올해 한전공대 설립과 연계해 전라남도와 지역 추진 중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개념과 유치 필요성, 비전 등에 대한 전 공직자의 공감대 형성과 이에 따른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짧은 파장의 방사광 빛(X-ray)을 이용해 극미세 가공, 극미세 물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연구 장비다.

이차전지, 신소재, 반도체 개발 등 에너지 산업 분야는 물론, 물리·화학·생명공학 등 기초과학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김유중 박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개념과 작동원리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PLS-II) 현황 △PLS-II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성능 비교 △국·내외 주요 동향 △

사업 유치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김 박사는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국가적 대형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 연구기관 인접성, 운영비 확보성, 인재양성 등을 고려해 최종 유치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는 혁신도시, 한전 본사 이전, 한전공대와 버금가는 지역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민이 일치단결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유치, 운영될 시 연간 유입 이용자가 1만여명 이상, 박사급 상주인력은 500여명 이상, 국비지원 운영비는 최대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미래융복합소재연구소와 같은 신규 연구기관 및 산업체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과학기술 위상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